아시아 불교회화 역사 한눈에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아시아 종교회화편〉 발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중앙아시아 소장 유물을 소개하는 첫 번째 자료집 〈중앙아시아 종교 회화 편〉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대형 벽화를 포함 총 77점의 벽화와 견(絹), 면, 종이에 그린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 불교적 주제를 다룬 그림이며 마니교 회화로 추정되는 그림도 포함됐다. 이는 20세기 초 일본의 오타니 고즈이 스님이 조직한 중앙아시아(실크로드) 탐험대가 수집한 유물로 구성됐다.


〈중앙아시아…〉에 실린 관세음보살.

대형벽화와 그림 등 불교주제 작품
역사학 등 종합적 연구 성과 담아

국립중앙박물관은 "1940년대 초기 연구 이래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 현지 조사, 20세기 초 서구열강 탐험대의 관련 유적에 대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개별 유물의 출처를 제시했다. 이 중에는 근래 조사로 밝힌 벽화 7점의 세부 출처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집은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와 새로운 연구 결과의 수록이다. 모든 유물에 대해 양질의 도판을 게재했다. 이 중 40여점은 컬러 도판으로는 최초로 소개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유물에 대해서 연구자와 일반 대중이 추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관련 연구의 출처를 자세히 수록했다.

여기에 39점의 유물에 대해 실시한 보존과학적 조사 내용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현미경 관찰, 적외선, X-선을 이용한 광학적 조사와 X-선형광분석,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직물자료 등의 바탕재질 조사 결과를 수록 역사적, 미술사적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

중앙아시아 유물은 현재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표 박물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대개 저간의 특별전시 도록이나 주요 소장품을 수록한 대형 도록 등을 통해 그 전모가 소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러한 도록은 도판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조형적 특성을 간략히 서술한 경우가 많다. 이와 비교해 이 자료집은 유물에 대한 역사학, 미술사학, 보존과학을 포함한 종합적 연구 성과를 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내외 중앙아시아 연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료집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점에서 판매된다. 총 265쪽이며 가격은 40,000원이다.

정혜숙 기자

"깨달음과 美의 현현"… 옻칠 영구 보존

성파 스님 옻칠 불화전

옻으로 불화를 표현한 전시가 눈길을 끈다. 성파 스님의 옻칠불화전이 5월 27~6월 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끊임없는 수행과 예술혼으로 불심의 세계를 예술로 표현해온 성파 스님은 전통불화와 옻칠공예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불교예술을 선보인다. 성파 스님은 "옻은 천년을 간다고 할만큼 영구보존이 가능한 재료다 이 옻을 통해 불화를 그려내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취지를 전한다.

성파 스님은 그동안 18만 도자 대장경을 봉안했고 전통사경 흑은 천연염색전, 창작산수화전, 옻칠화 개인전 등 다양한 전통장르를 활용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이제 스님은 이를 한국불화로 옮겨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에 이른 것이다.

스님은 "옻은 20년 수령이 되어야 수액을 추출할 수 있을 만큼 귀한 재료다. 마르는 속도는 매우 느려 색깔 하나를 칠하고 다음 채색을 하기까지는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일반 채색에 비해 5배의 공력이 든다. 우리의 불화를 재현해 전통을 보존한다는 원력을 세우고 그동안 꾸준히 이 작업에 매진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석가삼존도' 등을 비롯해 20여 작품이 대중들을 찾아간다. '석가삼존도'는 옻목판 위에 옻칠과 옻채색 그리고 순금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부처님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는 전형적 삼존도 양식이다. '영산회상도'는 석가세존이 마가다국 왕사성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관세음보살도'는 법화경이나 관무량수경에 나타나는 관음과 해상용왕, 용녀, 선재동자 등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조선후기 사천 운흥사 불화를 참고했다. 이밖에도 '제석탱화' '위태팔부신장 탱화' '화신관음도' '나한도' 등이 선보인다. 이 중 '화신관음도' '나한도'는 바탕재료에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옻 채색을 입혔다.


성파 스님의 옻칠불화전이 5월 27~6월 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작품은 '석가삼존도'.

6월 2일까지 불교역사기념관서
옻 · 알루미늄 · 순금 재료 사용
불화 165점 재현에 매진할 계획

미술평론가 윤범모 씨는 "성파 스님의 작품은 불법의 시각적 회화라는 점에서 환희심을 갖게 한다. 바로 깨달음과 아름다움의 현현이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앞으로 성파 스님은 꾸준히 한국불화를 재현하는데 매진할 생각이다. 스님은 "전통 한국불화를 36종 165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작품들의 원형보존에 계속해서 매진할 생각이다. 현재 작업중인 서운암에는 건조실을 마련해 놓고 옻칠 작업에 전념하고있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음악으로 꽃피는 처용의 사랑

오페라 '처용설화' 6월 8일~9일

한국의 불교적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조화를 이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창작오페라 '처용설화'가 6월 8일~9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작품은 천년의 역사를 품은 '처용설화'의 환생과 처용과 가실의 사랑이야기를 뛰어넘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고뇌를 음악으로 표현하다

음악을 맡은 작곡가 이영조는 한국 전통의 소리와 현대적인 음악적 어법의 결합을 추구했다. 서라벌, 승무, 용비어천가, 황진이, 처용 등 수많은 작품을 작곡한 이영조는 현대음악과 한국 고유의 소리를 절묘하게 결합해왔다.

지휘자 정치용과 국제 페스티벌을 통해 고전의 한국적 재해석으로 갈채를 받은 연출가 양정웅은 전통문화의 향기를 품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무대를 선보인다.



처용설화 포스터

'처용설화'는 현대음악과 불교음악의 이색적 만남을 통해 독창적인 한국 오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6월 8일~9일 양일간 오후 3시에 공연되며 티켓은 R 10만원, S 8만원, A 6만원, B 3만원, C 1만원이다.

정혜숙 기자

깨달음의 여정 삼색의 예술로

통도사 극락암 삼색삼소전…6월 9일까지


삼색삼소전 참여작가들

네 명의 작가가 펼치는 다양한 불화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눈길을 끈다.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감원 선광스님)은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 삼색삼소전'을 마련했다.

6월 9일까지 극락암 경내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전실근 작가의 '극락암 사계 및 미얀마 불교 특별전', 불화장 이수자 오기웅 · 배수정의 '기와 불화전', 이미영 화백의 '불교 묵화전' 등이 선보인다.

극락암 주지 선광 스님은 "평소 불교적 소재로 감동을 주고 있는 작가들의 모습이 마치 화두를 든 수행자의 모습"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통해 일상 속 수행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고 말했다.

전실근 씨의 특별전은 미얀마 특별전과 극락암 사계를 담았다. 맨발에 발우를 든 수행자들의 경건한 탁발행렬, 온통 황금으로 조성된 사원 쉐다곤 파고다의 경이로운 모습, 그리고 극락암의 무심한 시간이 담긴 작품을 렌즈 속에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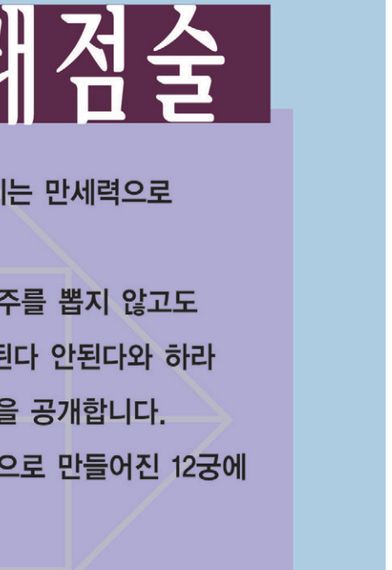
기와에다 전통 불화를 피어낸 오기웅 · 배수정 부부는 선생과 제자로 만나 불교미술대전에서 3년 연속 수상한 실력파 작가로 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다. 이번에 출품 작품은 총30점으로 관음보살도, 나한도, 신장, 용 등이 거친 기와 위에 자연스럽게 담겨졌다.

부처님의 얼굴을 묵화로 담아낸 이미영 화백은 크로키처럼 빠른 붓놀림으로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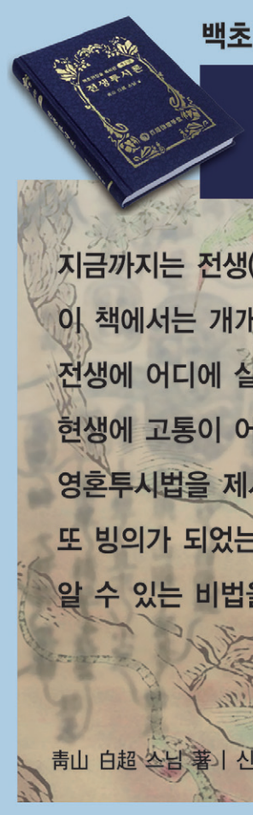
불화 · 사진 · 묵화 세 장르 만나
일상 속 수행의 의미 되새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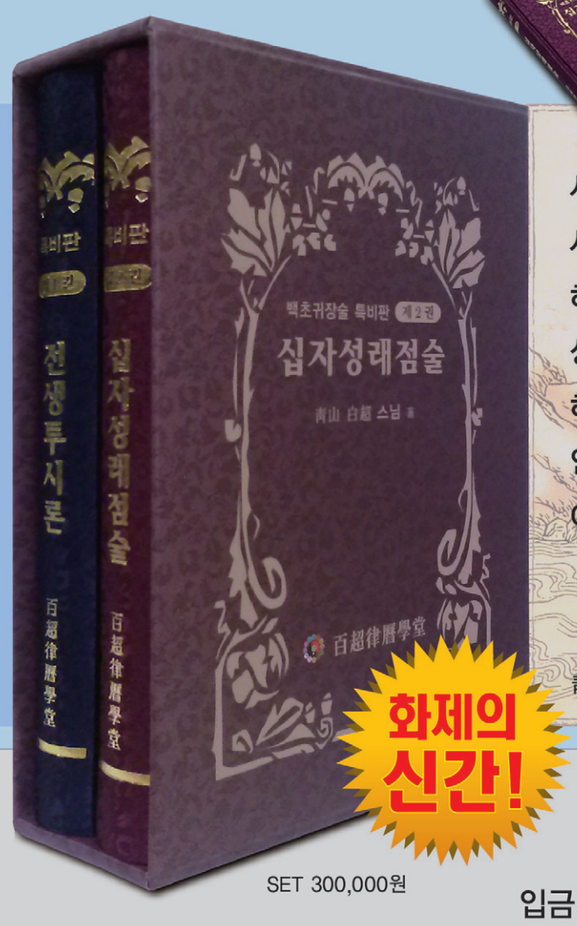
님의 얼굴과 극락암의 전각과 스님들을 거칠고 투박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화백의 작품 속 부처님의 모습은 거칠다. 코가 잘린 듯 훼손된 불상의 모습은 심술궂게 보일정도인데 거기 붙은 제목이 비경(非經)이다. 이처럼 이 화백의 모습은 부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신록의 계절 오월, 한국근대불교의 큰 스승인 경봉 스님께서 평생을 주석하신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 그곳에서 수행의 길을 걷는 작가들의 야단법석을 기꺼이 시간내서 들여다봐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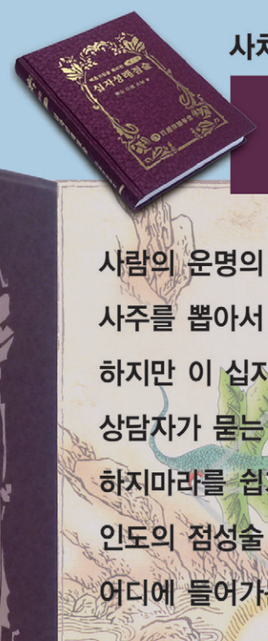

오기웅 작가의 '백의관음보살'.

박경수 부산지사장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SET 300,000원


사차원운명둔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 책 구입은 서점으로 배포되지 않고 백초율력학당에서만 판매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041)943-6882 / 010)3813-4443

百超律曆學堂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